

타자 공간의 의미 전환과 지리교육적 함의

박 명 화*

The Transformation of the Meaning of Other Spaces and Implications for Geography Education

Myung Hwa Park*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타자와 타자 공간의 의미를 전환하고 이에 대한 지리교육적 함의를 탐구하는 데 있다. 타자화는 근대적 사유에 기반한 이분법적 범주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구분은 타자를 소외시키고 권력의 비대칭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타자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존재하였으나 이분법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신유물론에 기반하여 타자의 개념을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비인간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주로 확장하고, 타자들 간의 횡단적 연결을 통해 끊임없이 변이하고 창조되는 존재로 개념화한다. 또한 타자 공간의 개념을 고정된 경계에서 벗어나 타자들이 얽혀 세계를 구성하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리교육에서 인간 중심적 사유를 넘어 인간 및 비인간과 함께 거주하는 타자로서 공간적 삶을 사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지리교육, 타자, 이방인, 타자 공간, 신유물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nsform the meaning of the other and the other space and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is for geography education. Othering is achieved through binary categorization based on modern ideas, and this distinction alienates the other and reinforces the asymmetry of power. Although efforts to approach the other have existed, they have been limited in that they have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binary thinking. Based on new materialism, this study expands the concept of the other from human-centered to a broader category that includes non-humans, and conceptualizes it as a being that constantly changes and is created through transversal connections between others. In addition, the concept of the other space is transformed from a fixed boundaries to open and dynamic space where others are intertwined to construct the world. This approach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thinking about spatial life as an other that lives together with humans and non-humans, beyond human-centered thinking in geography education.

Key words: Geography Education, Other, Stranger, Other Space, New Materialism

I.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리의 소멸(The death of distance)’(Cairncross 저, 홍석기 역, 1999)이 예측된 이

래로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실제로도 일상에서 이동의 제약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시적으로 접속하고 만나며 거리의 소멸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의 단절은 집과 학교, 회사, 여행

* 가경초등학교 교사(Teacher, Gakyung Elementary School), saint0182@hanmail.net

지 등의 물리적 공간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며 거리의 소멸과 타자와의 연결을 가속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계의 강화 또한 목도할 수 있다. 트럼프가 설치한 미국-멕시코 장벽과 브렉시트, 이민자와 난민을 반대하는 우파 정당의 득세 등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타자에 대한 경계와 배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처럼 타자와의 연결과 배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대에 타자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고, 타자와의 공간적 삶을 조명하는 일은 필수적일 것이다.

공간적 존재로서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개체들과 얽혀 살아가고 있으며, 언제나 타자들과 얽혀 있기에 우리의 삶은 ‘사회적’이다. 즉 우리는 타자 및 사물과 함께 작용하고, 새롭게 만들고, 융합하고, 행위하고 반응하는 가운데에 있다(Dewsbury, 2000, 477). 이렇듯 인간은 세계와 분리된 개별체가 아니라 타자와 연결된 존재인 까닭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타자와 얽혀 촉발되며, 따라서 타자는 시대를 관통하여 지리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근대 주체의 탄생 이후 타자는 주체-타자의 이분법적 구조 위에서 파악되었다. 즉 근대 담론이 인정하는 타자의 위치는 주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배경과 배제의 위치이거나, 혹은 주체에 포섭되어 주체의 증식을 이루는 동화의 위치이다(김지영, 2004, 50). 인간/자연, 문화/자연, 남성/여성 등과 같은 근대 이분법의 목록들이 결국 동일자의 영역만을 보여주었다는 로즈(Rose)의 비판과 같이(Rose 저, 정현주 역, 201),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동일자의 이야기로 환원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 기반할 때 공간은 게토(ghetto)와 같이 타자를 분리하고 타자의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를 형상화한다.

그러나 타자의 윤리학을 주장한 레비나스(Levinas)를 비롯하여, 포스트구조주의와 신유물론으로 이어지는 데리다(Derrida), 들뢰즈(Deleuze), 해러웨이(Haraway), 브라이도티(Braidotti), 바라드(Barad) 등은 중심화된 주체와 규정되는 자로서의 타자라는 이항대립적 구조를 비판하고 타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장한다. 특히 신유물론의 관점에서는 그동안 배제되었던 인종, 여성, 장애인 등 타자들의 정체성의 정치 혹은 인정 투쟁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자와 타자 사이를 횡단하는 관계적 사유를 강조

한다. 즉 배제되고 소외된 타자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서 개체들 간의 상호 얽힘과 구성에 초점을 둔다. 그 상호관계는 얽힘으로 구성된 모든 존재의 변이를 수반하며 세계를 구성한다.

지리학에서 타자는 인종, 민족, 젠더, 계급 등에 따른 공간의 권력과 배제의 역학에 기반하여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리학 연구들은 권력 집단이 어떻게 경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배제된 집단을 ‘타자’로 구분 짓고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나머지 집단을 중심부에 두는지를 탐구해왔다. 이 경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가시적이지만 타자를 주변화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The Newcastle Social Geographies Collective 저, 박경환 외 역, 2023, 35). 특히 포스트식민주의 지리학과 페미니즘 지리학에서는 기존의 공간 인식과 지식이 서구 제국주의, 백인, 남성 등 다수적 권력에 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생산되었음을 비판하고, 억압되고 소외되었던 ‘타자의 공간’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한 공간 인식의 해체를 주장하였다(Jacobs, 1996; Gregory, 2004; Valentine, 1989; Rose, 1993; Massey, 1994 외).

한편 지리교육에서 타자에 관한 연구는 명확하게 유목화하기 어렵다. 지리교육에서는 ‘타자’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타자 관련 연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수자(박경환, 2008), 이주(김갑철, 2017), 빈곤(한지은, 2024), 경계(원요한·임은진, 2021), 탈식민주의(김아영, 2010; 한동균, 2016), 공간정의(김갑철·조철기, 2017; 박선미, 2023) 등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공간에서 타자화를 경계하고, 윤리학적 접근 혹은 정의의 관점에서 지리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지리교육 연구에서도 타자와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타자와의 공간적 삶을 다루는 지리교육에서 ‘타자’ 개념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타자에 대한 접근 방법을 넘어서, 기존의 타자 개념에 부착된 이분법과 경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타자’ 개념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타자에 대한 기존의 접근을 검토하고, 신유물론의 관점에 기반하여 타자의 개념을 새롭게 논의하여 타자와 함께 하는

공간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앞으로 지리교육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공간적 타자와 타자의 공간

1. 이방인으로서 타자와 공간

타자성(otherness)(혹은 타자화(othering))은 개별자들을 ‘우리’와 ‘그들’이라는 두 개의 위계적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원칙에 기반한다(Staszak, 2020). 자아와 타자,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은 내부적 집단에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반면, 동질성을 벗어난 차이는 ‘제자리를 잃어버린(out-of-place)’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우리’에 속하지 못한 이들은 타자로 규정되며, 분류하고 규정하는 주체의 반대편에서 수동적 존재로 머무르게 되는 권력의 비대칭성을 갖는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동안 인종, 계급, 장애, 성별, 이주 등을 기준으로 수많은 타자가 존재해왔다. 타자는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것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타자는 ‘타자화’의 결과로 생산되고 규정된다.

이렇듯 타자를 타자화하고 나와 구분하는 것은 근대 서구의 사유에서 비롯되었다. 지배적인 서구 담론은 동일성의 논리에 기반하여 타자의 독특한 이질성을 소거하고 타자에 규준과 정상성이라는 다수적 척도를 투사하여 특정한 형상을 부여하였다. 사이드(Said)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은 친숙한 것(유럽, 서양, ‘우리’)과 낯선 것(동양, 동방, ‘그들’)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전제하여 서구를 합리성과 정상성의 범주로 설정하고, 동양을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타자로 규정한다(Said 저, 박홍규 역, 2007). 또한 까뮈(Camus)의 소설 「이방인」에서 주인공 피르소가 처벌받은 것은 살인죄 때문이라기보다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죄 때문이었다. 즉 주인공이 처벌받아야 마땅한 ‘타자’가 된 까닭은 아랍인을 살해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죽음에 슬픔의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 사회적 정상성과 거리가 먼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타자 개념은 이분법적 논리에 기반한다(Staszak, 2020). ‘타자’라는 개념에는 자아와 타자를, 우리와 그들을, 토박이와 이방인을, 여기와 저기를 구분짓는

강력한 이분법적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단지 차이를 식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이에 위계질서를 부여하여 ‘우리’와 ‘동질성’은 중심성을 갖게 된다. 이는 타자를 경계 밖의 위치에 고정하고, 차별과 배제의 기제를 암묵적으로 승인한다.

이 유럽 중심적 패러다임은 자아와 타자의 변증법을, 그리고 동일성과 타자성의 이분법적 논리를 함축한다. ... 주체성은 의식과 보편적 합리성과 자기규율적 윤리적 행위와 동일시되고, 타자성은 주체성의 부정적인 짝, 주체성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대응쪽으로 정의된다. 차이가 열등성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타자들’로 낙인찍히는 사람들에 대한 본질주의적이고 치명적인 함의를 갖게 된다(Braidotti 저, 이경란 역, 2015, 26).

이분법적 사유 속에서 타자는 우리의 곁에 있을지라도 늘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 이때 이방인은 ‘오늘 도래하여 내일도 머무르는 존재’(Simmel, 윤미애 외 역, 2005, 79)라는 짐멜의 표현처럼, 오늘 잠시 머무르고 내일 떠나는 방랑자들이라기보다 물리적으로 근거리에서 머물지라도 ‘우리’가 아닌 외부자를 뜻한다. 여기서 초점은 이방인이 ‘내일도 함께 머무르는 존재’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래한 자’라는 데 있다. 이는 이방인이 단순히 물리적 외국인, 이주민과 같이 물리적으로 이동한 자가 아니라, 동질성의 경계를 넘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 고유의 문화유형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 즉 ‘한 집단의 구성원이면서 전적으로 그 성원이 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장혁준, 2018, 13). 그러하기에 현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역사적으로 고정된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사회의 관습과 이데올로기에 물음을 던지게 하는 젠더적·인종적·민족적·계층적 소수자일 수 있다(김지윤, 2022, 76).

표 1. 타자화에 따른 이분법의 목록들

이분법의 목록	
자아, 우리	타자, 그들
동질성	이질성
여기	저기
토박이	이방인

타자를 이방인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질 사회에 대한 환상이 숨어있다. 동질 사회의 환상은 특정 타자에게 이방인의 형상을 덮어씌운다. 한 사회의 동질화는 단순히 단일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차이가 부차화된다는 데 가깝다. 더는 차이가 없다고 해서 사회가 동질화되는 것이 아니다. 차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 공통된 것 앞에서 차이가 부차화될 때 사회는 동질화된다. 결과적으로 동질화는 ‘당연함’을 생산한다(Charim, 저, 이승희 역, 2019, 24-25). 이러한 점에서 이방인으로서의 타자는 동질성의 경계 밖에 존재한다. 그는 기존 권력과 질서를 공고히하고 안정화를 존속하게 하는 경계를 동요시킨다. 따라서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다.

이처럼 타자와 타자화에는 안(in)과 밖(out), 여기(her)와 저기(there)이라는 공간적 관점이 결부되어 있으며, 경계 밖에 존재하는 이방인은 타자성의 공간적 표현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근대 담론에서 인종, 성별, 계급 등으로 타자화된 ‘타자들의 공간은 경계 너머에 존재한다. 이 관점에서 지리적 경계의 주요 기능은 장소를 만들고 구별하는 것이다. 경계는 어떤 지리적 공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 의미를 다른 지리적 공간으로부터 구분 짓는다(Diener and Hagen 저, 임경화 외 역, 2022, 22). 즉 경계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을 구별짓고, 타자들의 접근 통제를 상징하며, 특정 행동 규범을 강요한다(Diener and Hagen 저, 임경화 외 역, 2022, 101). 이와 같은 경계를 단단한 경계, 경화된 경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주택단지, 국경 등과 같은 물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학교의 급식실이라는 공간에서조차 경계는 존재한다(Thomas, 2005).¹⁾

타자의 공간은 비가시적이지만 폐쇄적이고 수동적이며 권력의 비대칭성을 지닌다. 경계는 가시성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행적으로 삶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친다. 이방인으로서 타자가 공간에서의 성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정치로 인정 투쟁을 벌이거나 다수적 권력에 길들여져야 한다. 결국 이들은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쟁취’하거나 ‘승인’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기반할 때 그리스 시대의 노예에서부터 근대의 광인, 현대의 이주민, 여성, 장애인 등 타자가 ‘누구’인지 그 대상은 계속해서 변화해왔으나, 경계

밖에 위치하는 타자라는 존재 자체는 고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누가’ 타자로 존재하는지가 아닌, 타자란 무엇인지 자체에 대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으며,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타자의 공간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끌어오기와 다가가기

이방인으로서 타자의 공간은 거리(distance)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가깝고 먼 정도와 관계없이 타자의 공간은 ‘우리’의 외부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동안 타자의 공간이 ‘우리’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타자의 존재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움직임 속에서 한편에서는 타자의 공간에 새겨진 경계를 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타자의 공간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는 ‘우리’의 범위를 확장하여 경계를 넓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안에 모두가 포함되어 이방인이 아예 없도록 ‘우리’를 매우 넓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Charim 저, 이승희 역, 2019, 140). 즉 동질 집단으로 상정되는 ‘우리’의 범위를 확장하여 타자화되었던 타자들을 포섭하고 하나의 범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범위를 확정하는 관점은 공간과 결합할 때 더욱 강력한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가령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 지구촌’과 같이 ‘우리’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공간 내부의 동질적 특성을 부각하고, 그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적 타자들을 우리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타자를 소거하고 동질적인 우리를 구성하지 않는다. ‘우리’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차이들이 소거되며, 표면적 울타리 내부에는 또 다른 경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아닌 존재를 상정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만일 ‘우리’를 극한으로 밀어붙여 지구 전체로 극대화한다면 더 이상 ‘우리’라는 표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와 우리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한, ‘우리’와 ‘타자’라는 이분법적 분류는 존속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범위를 확대하는 첫 번째 접근 방식을 타자

를 우리의 범주로 ‘끌어오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타자의 입장에서 타자의 공간에 ‘공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감(empathy)은 타자의 관점에서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어려움을 상상적으로 경험하는 정동적 행위(affective act)로 정의된다(Pedwell, 2016). 즉 공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험적 세계로 상상력을 동원해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Bondi, 2003, 71). 이는 외부자인 주체가 타자의 공간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체의 위치를 타자의 자리로 옮겨서 공간의 맥락, 상황 및 타자의 감정을 생각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회적 배제와 편견을 겪는 타자의 입장에서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나, 환경문제나 빈곤, 기아, 정치적 불안정 등을 겪고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등이 이러한 방식에 해당한다. 또한 물리적 거리와는 관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공간을 타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음을 헤아려보는 것 역시 공감적 접근이다.

그러나 타자의 공간에 공감하는 접근은 ‘공감하는 자’로서 특권을 가진 주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계급적, 인종적, 지리적, 정치적 특권을 가진 상상적 주체가 ‘차이’를 마주한 후 공감을 확장할 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Pedwell, 2016). 이는 데리다가 말한 주체 중심적 관점을 내재한 ‘관용’의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한다(김애령, 2008, 187).²⁾ 공감의 권리와 권한은 주체에게 있으며, 타자는 움직이지 않고 주체가 타자의 입장으로 위치를 이동한다. 가령 기후 위기 지역의 사람들은 토지의 황폐화, 각종 자연재해, 이상 기온, 질병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여 다가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타자는 단순히 공감의 대상으로 남아 제자리에 고정된다(Hemmings, 2011; Pedwell, 2016에서 재인용). 타자의 공간에 접근하는 두 번째 관점을 우리가 타자에 공감하여 ‘다가가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끌어오기’와 ‘다가가기’의 방식 모두 우리/타자, 주체/대상과 같은 이분법적 사유를 전제하고 있으며, ‘우리’와 ‘주체’에 특권을 부여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결국 두 관점 모두 ‘우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중심화하는 방식은 타자들을 타자화하고, 견고한 경계를 쌓으며, 우리 결의 이방인들을 양산해낸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이항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새롭게 타자를

사유하고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Ⅲ. 타자 개념의 전환과 생성의 공간

그동안 타자들이 다수적 권력을 지닌 주체에 의해 타자화되고 경계의 외부에 머물렀다면, 타자의 공간을 새롭게 사유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 타자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성급 그물로 포획되지 않는 차이의 존재이며, 그러한 차이를 소거하지 않고 사유할 수 있어야 타자의 공간 역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신유물론에 기반하여 타자의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신유물론은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물질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물질성에 대한 초점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근간을 이룬 자연과 사회, 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무생물, 정신과 물질 등과 같은 이분법을 가로지른다(Fox and Alldred, 2019, 1). 물질은 스스로가 변형적인 힘이며, 그 진행 중인 변화 와중에 어떠한 재현성도 뿌리내리지 않는다(Tuin and Dolphijn 저, 박준영 역, 2021, 154). 타자를 인식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물질성으로 본다면, 타자는 인간 타자에 국한되지 않으며 타자들 사이의 횡단성에서 새로움이 창발하는 것으로 전환된다.³⁾ 따라서 신유물론은 우리와 타자라는 근대적 구분을 무력화하며 타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이는 또한 경계 외부에 위치한 타자의 공간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1. 타자 개념의 전환

1) 인간 너머(more-than-human)의 타자

기존의 타자 이론은 타자에 대한 수동적 규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관점에서조차 ‘인간’ 타자라는 전제를 함축하였다. 가령 레비나스는 근대철학에서 중심성을 차지한 주체 개념을 비판하며 타자의 윤리학을 주장하였다. 절대적으로 다른 자, 곧 타자는 모든 것이 박탈된 공핍한 ‘얼굴’, 고통받는 얼굴의 모습으로 나에게 현현한다(서동욱, 2000, 143). 레비나스에게 주체성은 얼굴로 현현하는 타자와의 관계로 구성된다. 이때 고통받는 절대적 타자는 ‘인간의 얼굴’로 현현한다. 즉 일자(一者)에 의해

규정되는 타자가 아닌 규정 불가능성의 절대적 타자 개념에서도 비인간은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자를 인간적 관점에서 인지능력을 가진 존재로 국한하지 않는다면 타자는 인간 이상의 존재들로 확장된다. 물질성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타자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단지 물질적 존재들을 타자로 사유한다고 해서 주체와 타자 사이에 설정된 위계나 권력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들 사이의 위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여전히 다수적 권력의 주체가 비인간으로 확장된 타자를 타자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과 비인간뿐만 아니라 존재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던 위계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한다.

신유물론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일원론적 존재론은 존재 간의 위계성을 해체하고 모든 존재들을 하나의 평면에 놓는다. 스피노자(Spinoza)는 초월적 존재이자 궁극적 진리인 일자(一者)를 해체하며 존재론적 일의성을 확립하였다. 그에게 신은 더 이상 상층에 존재하며 존재자들을 규정하고 재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이지만 모든 존재자들에 내재한다. 들뢰즈에 따르면 존재는 하나의 의미로 말해지지만, 그것은 차이나는 것으로 말해진다.

존재의 일의성(uni-vocite)은 존재가 목소리(Voix)라는 것, 존재가 말해진다는 것, 모든 대상의 하나의 유일하고 동일한 ‘의미’에 있어 말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가 연표되는 대상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존재가 연표되는 모든 것에 대해 존재는 동일한 것이다(Deleuze 저, 이정우 역, 1999, 303-304).

즉 일원론적 존재론은 모든 존재들이 하나의 평면에서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차이를 소거하는 동질화를 뜻하진 않는다. 인간과 비인간 모두 타자로서 위계화가 해체된 평면에 존재하지만, 모두 차이의 존재들이다. 따라서 일원론은 결말이 열려 있고 상호 관계적이며 성별이 다양하고 종을 횡단하는 되기의 흐름들을 함의한다(Braidotti 저, 이경란 역, 2015, 117).

그 결과 타자는 인종, 성별, 계급, 이주 등으로 타자화된 인간 타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및 비인간의 비위계적 평면으로 확장된다. 특히 해러웨이는 그동

안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인 위계적 관계를 비판하며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하여 타자의 범위를 비둘기, 나비, 박테리아 등 인간 이상으로 확장한다. 해러웨이는 단순히 타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은 ‘실뜨기’로 얽혀 있고 이러한 얽힘을 통해 세계를 공-산(sympoiesis)한다고 말한다(Haraway, 저, 최유미 역, 2021). 다시 말해 실뜨기로 연결된 타자들은 세계와 얽혀서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생성하는 공생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타자는 경계 너머에 위치한 이방인이 아니라, 나와 얽혀 세계를 지각 가능하게 하는 존재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타자는 ‘지각장의 구조’이자 ‘가능 세계의 표현’이다(Deleuze 저, 이정우 역, 1999, 481-482).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각하고 있을 타자의 존재를 전제하고서만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바와 같은 하나의 전체화된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타자를 통해서, 이 전체화된 세계의 상관자로서 우리 의식은 구성된다(서동욱, 2000, 150). 타자는 내가 지각하는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지각장의 구조로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게 한다. 타자는 현실 세계의 아래에 있는 잠재성의 세계를 함축하고 있으며, 그러한 타자로 인해 우리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요컨대 타자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각에 이미 얽혀 있다. 타자는 항상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Saldanha, 2017, 199). 이와 같은 타자 개념은 인간이라는 경계도, 존재 사이에 새겨진 위계성도 지우고, 타자를 인간 너머의 존재들로 확장하여 복잡한 얽힘의 세계에 함께 거주하는 공생의 관계로 이끈다.

2) 타자의 연결성과 횡단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타자들의 세계에 거주하고 있으며 타자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타자 개념의 두 번째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그 연결의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자들은 내부-작용으로 서로 연결된다. ‘내부-작용(intra-action)’은 바라드의 신조어로, 서로 얽혀 있는 행위주체성들의 상호 구성을 의미한다. ‘상호작용(interaction) 개념이 선행하는 개별 행위주체성이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과는 달리, 행위주체성은 내부-작용을 통해 창발한다(Barad, 2007, 33). 이는 완결된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얽힘을 통해 존재들이 구성된다는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작용은 A가 B에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A가 B의 입장에 공감하여 배려하는 호혜적 관점 역시 아니다. 내부-작용은 A와 B 모두에서 탈영토화하는 것이다. 근대적 관점의 타자 개념은 영토성에 기반하여 타자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범주화하였다. 반면 타자들은 특정한 정체성으로 고정될 수 없고 ‘주체’ 역시 합리성과 정상성이라는 미명 하에 다른 존재들과 분리될 수 없다. 타자들은 얽힘을 통해 구성되는 중에 있으며, 그러한 까닭으로 완결된 존재란 없다. 즉 타자 개념은 기존의 우리와 그들, 주체와 타자, 여기와 저기라는 이항대립적 항들을 ‘내재적 방식으로 가로지르거나 교차한다’(Tuin and Dolphijn 저, 박준영 역, 2021, 144).

이렇듯 완결된 존재로서 주체와 타자라는 기존의 대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질적 존재들이 기존의 자신을 탈영토화하여 연결되는 것을 ‘횡단성(transversality)’이라 할 수 있다. 횡단성이란 이분법적 사유를 탈피하여 존재들 ‘사이’에서 얽힘을 통해 존재가 구성됨을 의미한다. 즉 타자들은 ‘인과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부-작용함으로써 횡단한다’(박준영, 2023, 159). 가령 그동안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인간중심적 타자성에 기반하여 다루어져 왔다.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관점뿐만 아니라 ‘개의 무조건적 충성심과 헌신에 대한 감상적 담론’(Braidotti 저, 이경란 역, 2015, 93) 역시 인간중심적 사고의 결과이다. 해러웨이는 모든 규모에 속한 모든 타자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어질리티(agility)⁴⁾를 제안한다(Haraway 저, 황희선 역, 2019). 어질리티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반려중’의 관계는 인간이 만들어 낸 척도로 개를 범주화할 수 없으며, 서로에게 응답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개와 인간의 관계는 ‘각각의 본성을 혼종화하고 변화시키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중간지대를 전면에 드러내는 변형과 공생의 관계’(Braidotti 저, 이경란 역, 2015, 106)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동물-되기의 과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기반할 때 타자는 이미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타자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횡단적 연결에서 생성된다. 횡단성은 인간 타자에게 우월성을 부여하지도, 타자들을 범주화에 속박하지도 않는다. 이질적인 타

자들은 함께 얽혀 기존의 항에서 탈영토화하며 변이한다. 요컨대 타자는 내부-작용으로 횡단하며 생성되는 존재이다. 이로써 토박이로서 정체성, 이주민으로서 정체성과 같은 고정된 정체성을 생산하는 “너는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은 지워지고, 누구와 함께, 어떻게 생성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3) 타자의 창조성

타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늘 다른 타자들과 얽혀 있다. 일상에서 인간은 다른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식물, 무생물 등 무수히 많은 타자들과 연결된다. 명확한 경계를 지닌 완결된 주체로 상정되었던 인간조차 박테리아, 세균 등과 이미 얽힌 존재이다. 이 같은 타자들의 연결은 탈영토화의 운동을 통해 기존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렇다면 타자들 사이의 연결이 생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타자 사이를 가로지르는 횡단적 연결은 타자의 세 번째 특징으로 연결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횡단적 연결은 기존의 항들을 탈영토화한다. 각 항에서 벗어나는 탈영토화는 사이의 생성을 만든다. 다시 말해 물질은 이질적인 것의 횡단을 통해 무언가 다른 것, 차이 나는 것, 새로운 돌연변이들을 만들어 낸다(박준영, 2023, 156). 따라서 타자들 사이의 횡단선은 근대적 관념이 만든 허구적 이분법을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이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타자, 자연과 문화와 같은 이분법과 재현가능성은 해체된다. Tuin과 Dolphijn은 신유물론이 이원론을 횡단하며 개념을 창조하는 차이의 철학이라 말한다.

신유물론자들은 개념을 창조하는 활동, 존재인식론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차이의 철학을 수립한다. 부정적인 것에서 관계성, 즉 이원론적 의미는 문제가 된 관계의 항들을 전제한다. 반면 개념의 창조는 이원론의 횡단을 야기하고, 긍정적인, 즉 부정성이라기보다 실증성(positivity)에 의해 구조화되는 관계성의 긍정을 이루어낸다. 여기서 바는 “극한으로 밀어 붙여진 차이”(Deleuze, [1968] 1994, 45)이다 (Tuin and Dolphijn 저, 박준영 역, 2021, 181).

즉 타자들의 횡단적 연결은 기존의 항에서 탈영토화하여 개념을 창조한다. A와 B의 마주침은 그 ‘사이’에서 A도 B도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생성한다. 즉 횡단성은 타

자의 고정된 정체성의 응결을 막고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한다고 볼 수 있다. 동질적인 ‘우리’ 밖에 이방인으로 존재하였던 타자의 차이는 위협적인 것, 소거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타자 사이의 연결은 흑인으로, 이주민으로, 여성으로 고정되었던 단일한 정체성을 무수히 많은 특이성들로 개방하며, 차이를 부차화하였던 동질 사회의 환상을 깨뜨리고 타자를 차이의 존재로 만든다. 다시 말해 횡단성은 정체성의 복수화와 변이에 다름 아니며, 타자는 ‘분열적 주체’(Deleuze & Guattari)이자 ‘유목적 주체’(Braidotti)이다.

요컨대 타자는 타자와의 접촉에 따라 새로운 특이성이 생성되는 창조성을 지닌다. 따라서 타자는 ‘내부-작용의 측면에서 보다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Barad, 2007, 150). 이는 근대적 사유에서 타자화되었던 타자의 고정된 정체성을 동요시키고 불안정화하여 끊임없는 변이를 만든다. 그러나 타자와의 접촉으로 생성된 창조성이 모든 정체성을 소거하여 무(無)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타자와의 연결은 단지 불변하고 고착화된 정체성을 해체하여 정체성을 다중체(multiplicity)로 만드는 것이다. 즉 새로운 타자는 변이하는 불안정성 및 비결정성, 그리고 임시적 안정성과 결정성 사이의 역동성 속에서 존재한다.

2. 타자와 함께하는 생성의 공간

타자는 인간 및 비인간을 포괄하는 모든 존재들을 의미하며, 횡단적으로 연결되어 창발한다. 타자 개념을 이 같이 전환한다면 공간 역시 인식대상이 아닌 타자로 볼 수 있다. 타자로서 공간은 다른 타자들 사이의 조우에 연루되며 ‘나의 생성뿐만 아니라 세계의 변이를 촉발한다. 본 절에서는 타자 개념의 전환을 바탕으로 타자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의 특성을 밝힌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타자의 공간’에 부착되어 있던 경계의 의미부터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타자 개념에는 명확한 경계가 함축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안과 밖, 여기와 저기를 구분하였다. 경계를 기준으로 타자화된 타자들은 가시적·비가시적 경계 밖으로 내몰리고 타자로서 ‘규정’된다. 이때 경계는 근대적 사유에 기반한 타자화의 공간적 형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멕시코 장벽과 같은 거대한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우리’와 ‘그들을

분류하는 이분법적 담론들은 일상의 경계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타자 개념을 전환할 때, 타자 개념에 결부되어 있던 경계(boundary)는 사라지고, 타자와 함께 접경지대(border)를 형성하게 된다. 굴드(Gould)는 자연 상태에 있어서 두 종류의 가장자리인 경계(boundary)와 접경지대(border)의 중요한 차이에 주목하였다. 접경지대는 구멍이 많은 가장자리이고 경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Sennett 저, 김병화 역, 2020, 325). 즉 경계는 견고하고 경화된 블록인 반면, 접경지대는 다공적(porous)이고 임시적이다. 이와 같은 접경지대의 의미를 기존의 경계 개념에 적용해보면 타자 공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새로운 타자들의 세계는 어떠한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평평한(flat) 세계가 아니라, 마주침이 만들어 내는 다공적이고 임시적인 경계가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 경계는 승인이나 쟁취로 성원임을 증명해야 하는 곳이 아닌, 드나들이 자유롭고 생성과 변경, 소거에 열려 있으며 임시적이다. 즉 타자와의 연결은 곧 느슨하고 다공적이며 일시적인 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안과 밖, 내부자와 외부자의 구분이 없으며 경계는 끊임 없는 변이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공간은 물질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진행 중인 차이생성적 분절(articulation) 안에서 내부-작용으로 생산된다는 바라드의 표현처럼(Barad, 2007), 공간은 타자와 함께하는 생성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근대적 사유에서 공간은 이성적 판단의 결과로 법칙이 부여된 객체이자, 그러한 판단을 위해 탐구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 역시 배제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타자화된 타자’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상적 삶은 다른 인간 및 비인간 타자들, 그리고 공간과 얽혀 발생한다. 즉 우리는 타자들과 함께 얽히며 거주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는 타자의 공간이 구획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타자들의 공간이며 타자와 함께 얽혀 생성하고 있다. 이처럼 타자들이 접촉하여 특이성을 생성하는 공간을 매끄러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매끄러운 공간(smooth space)은 흠패인 공간(striated space)과는 달리 정해진 경로나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질적인 타자들 간의 조우는 동일성에 포획되지도, 특정 척도에 의해 평가되지도 않는다. 따

라서 매끄러운 공간에서 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우월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타자들이 결합하여 생성하는 정동(affect)이 존재할 뿐이다.

요컨대 공간은 이질적 타자들이 비위계적으로 얽혀 사건이 촉발되고 끊임없이 생성하는 역동성의 세계로 볼 수 있다. 타자들과의 내부작용이 만드는 연결은 세계를 함께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며, 공간 역시 지구의 타자로서 세계의 생성에 참여한다. 공간과 함께 우리, 그리고 세계는 끊임없이 구성되고 있다. 즉 타자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얽힘의 방향, 정동, 강도(intensity)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얽힘을 통해 세계를 ‘공-산’하는 것이다.

IV. 지리교육에서 타자 공간의 함의

1. 인간 너머의 타자로 확장하기

지리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 그리고 공간적

삶에 관한 이해와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타자와의 삶을 그 교육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의 타자 개념과 타자 공간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리교육에서의 함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지리교육에서 ‘타자’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및 지리 교육과정에 ‘타자’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대신 ‘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교육부, 2018).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에서 ‘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맥락을 살펴보면 사회과 학습의 가치·태도의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은 인간 주체에 국한된 표현인 까닭으로 공간적 삶과 환경에서 비인간 타자들과의 관계와 영향력은 충분히 고려되기 어렵다. 또한 ‘지역 밖에 거주하는 타인의 관점’이라는 표현은 타자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칫 타자를 ‘안과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타자’가 언급된 부분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	가. 교수·학습 방향 1) 교수·학습의 원칙 (4) 민주적 가치 및 태도 함양에 적합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나 쟁점에 대한 탐구, 가치 분석, 의사 결정 등과 같은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가치 갈등과 문제 상황에서 타인 에 대한 공감 능력, 문제나 갈등 해결 및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습을 전개한다.	사회	가. 성격 사회과에서 기르하고자 하는 시민은 인간과 사회현상을 탐구하고 지역사회, 국가, 세계에서의 생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타자 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어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국가·세계의 발전에 기여한다.
	2) 교수·학습의 방법 (5) 모둠별 협동 학습을 통해 민주 시민의 중요한 자질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 참여 의식, 타인 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정의감, 협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시민과 지리	(2) 교수·학습 방법 (다) 장소, 스케일, 상호연결성, 관계적 사고 등과 같은 지리적 개념에 기초하여 학습 문제에 거시적·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리적 연계 속에 숨겨져 있는 나와의 관계를 마주하게 함으로써 타자 에 공감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세계지리	가. 교수·학습 방향 세계지리는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연경관과 문화적 다양성, 인문 현상의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의 문제를 그곳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관점과 지역 밖에 거주하는 타인 의 관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우리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공감하는 과목이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나. 목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의 목표는 기후변화와 생태 위기의 시대에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타자 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 공존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배려, 책임, 포용, 인정 등과 같은 가치를 지향하며 생태시민으로서 역할과 실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출처: 교육부, 2022에서 발췌

밖'이라는 공간적 이분법과 결부시킴으로써 구분과 경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새롭게 '타자'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타인'이라는 용어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타자'로 바뀐 것은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나아가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타자' 용어가 제시된 맥락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과의 '성격'에서는 타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시민과 지리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타자에 공감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의 '목표'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타자로 인식하지 않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타자'가 이전의 '타인'에 비해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탈피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타자라는 표현에서 비위계적 관점의 인간 너머 타자를 포함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인간'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나, 그것은 인간 및 비인간을 포함한 '타자' 개념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도시의 미래 탐구에서는 도시가 인간만의 삶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다양성과 차이가 공존하는 공간임을

밝히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에서는 비인간의 권리와 인간 및 비인간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를 다룬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인간 존재를 새롭게 제시하여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성을 교육과정에 도입한 점은 큰 의미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타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타자'라는 표현에는 '타자화된 타자'의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타자 개념이 인간에 국한된다면, 지리교육에서 비인간 존재가 도입되었음에도 그것을 공간과 환경,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의 변화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지리교육에서 타자를 인간 너머의 존재들로 확장하고 기존의 타자 개념에 결부된 우리와 그들, 안과 밖, 인간과 자연, 이방인과 토착민 등과 같은 이분법적 사유를 해체할 때, 공간을 역동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삶은 인간만이 행위자가 아니라 복잡한 배치(assemlage)의 결과물이다(Braun, 2004, 273). 즉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은 인간과 비인간 타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사건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변이하는 생성(becoming)의 공간이다. 타자를 비인간 존재들로 확장함으로써 학생들은 타자를 '함께 세계를 생성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인간 타자들의 행위주체성이 공간

표 3.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인간'이 언급된 부분(일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인간'이 언급된 부분(일부)	
도시의 미래 탐구	가. 성격 ... 도시의 미래 탐구는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의 도시 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며 하나의 생태계로서의 도시, 인간과 비인간 의 공존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목표 ... 인간과 비인간 , 다양성과 차이가 공존하는 도시 공간과 도시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모두를 위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로컬 시민, 민주시민, 생태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 계획과 도시 혁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인간과 비인간 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하며 공존을 위한 방안을 실천한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가) 성취기준 해설 [12기03-02]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환경 및 경제 정책과 저탄소 에너지 기반 경제 체제로의 전환, 비인간 에게 권리를 부여한 환경법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등을 조사한 후 그 의의와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기후정의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적절한 사례인지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12기04-03] 정의, 책임 그리고 배려 등과 같은 생태시민의 덕목을 사례 탐구를 통해 이해하고, 인간 및 비인간 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를 위한 다층적 스케일에서의 실천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출처: 교육부, 2022에서 발췌

적 특이성에 미치는 힘과 영향을 인식하고 공간에 무수히 존재하는 차이와 특이성을 지각할 수 있다.

이처럼 지리교육에서 인간 너머의 관점은 학생들이 도시를 다양한 종들과 함께 인간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 및 재형성되는 역동적인 장소로서 재정위시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김병연·조철기, 2020, 443). 또한 지역문제와 환경 위기 등과 같은 공간적 문제에 접근할 때 역시 인간적 관점에서만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습에서 나아가 비인간 타자들의 행위주체성을 인식하여 문제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지리교육에서 인간 너머 타자로의 확장은 일원론적 존재론에 기반하여 타자를 타자화하지 않도록 하며, 그동안 비가시화되었던 비인간 타자들의 행위주체성을 드러냄으로써 공간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인식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타자와 ‘함께 얽힘’의 관계로 공간을 이해하기

지리교육은 공간적 삶에서 발생하는 차이와 갈등을 인식하고, 인류의 공존을 위해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상호 협력 및 연대를 강조한다(교육부, 2022).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리교육에서 그릇된 모습으로 대상을 타자화하는 문제(김민성, 2013), 현실 세계에 실존하는 타자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김갑철, 2016), 불평등과 차이의 공간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문제(오현경, 2018) 등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졌다. 기존의 비판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타자와 타자의 공간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관점으로 타자를 환원하였다는 문제였다.

타자를 수동적 존재로 대상화하거나 타자의 공간을 주체의 관점으로 환원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간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와 공간, 환경이 인식 주체와 대상, 자아와 타자, 인간과 비인간과 같은 이분법으로 분리되어있지 않으며, 서로 얽혀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타자를 타자화된 대상이 아닌 연결성을 생산하며 함께 얽히는 관계로 볼 때, ‘타자의 공간’은 ‘타자와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타자의 공간이 귀속의 공간이자 정체성의 공간이라면, 타자와의 공간은 변이와 생성의 지대이자 열린 접경지대이다. Ingold가 세계는 선들의 얽힘이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Ingold 저, 차은정 외 역, 2024), 일상의 공간은 인간 및 비인간 타자들과 얽혀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즉 우리가 거주하는 일상의 공간은 타자와 함께 ‘함께 내던져져 있음(thrown-togetherness)’(Massey 저, 박경환 외 역, 2016, 268)의 지대이다. 이 같은 얽힘은 환경결정론이나 반대로 가능성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방향적인 연결이나 영향을 의미하지 않는다. 얽힘은 함께 연결된 구성 요소들 모두의 변이를 수반하며, 특정한 양상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학습자들은 공간에 존재하는 관계성을 이해함으로써 공간적 지식을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간을 체현(embodiment)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목표는 다르게 생각하고, 타자와 다른 사물들, 새로운 존재들의 힘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환된다(Bogue, 2004, 341).

가령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단원에서는 고장마다 서로 다른 생활 모습의 차이, 고장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 생활 모습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환경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8). 해당 단원에서는 바다가 있는 고장, 논과 밭이 있는 고장, 도시, 산이 많은 고장 등 다양한 환경에 따른 고장의 서로 다른 특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 중 ‘도시’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도로가 발달하였으며 높은 건물도 많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인문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물건이나 음식을 팔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사회 3-2 A 교과서, 2022, 27)

도시는 인간 및 비인간,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 차이와 특이성이 함께 얽혀 생성하는 복잡성의 공간이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높은 수준의 도시의 지속적인 변화와 복잡성을 다루기 어려운 점을 차치하더라도, 고장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과 생활 모습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고려한다면 도시가 다양한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이 단방향으로 공간의 특성과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공간은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인간 및 비인간 타자가 함께 얽혀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정 공간과 얽혀 정동이 발생하며, 그러한 얽힘이 해체되고 새로운 얽힘의 사건으로 변이하는 타자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 모든 존재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은 고정된 공간적 특질을 동요시켜 불안정성과 역동적 변이로 개방한다. 따라서 타자와의 접속으로 생성하는 세계에서 공간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학습을 통해 배우는 지식의 성격은 '분류적이지 않고 이야기적이며, 총체적이지도 개요적이지도 않으며, 끝이 열려 있고 탐색적이다'(Ingold 저, 차은정 외 역, 2024, 93). 즉 공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단지 표준화, 객관화된 지식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특이성을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교육에서 타자와 얽힘의 관계로 공간에 접근한다면 학생들은 일상의 공간을 다양한 타자들이 공존하며,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 역시 변이해나간다는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응답-능력(response-ability)'으로 환경에 접근하기

공-현존, 즉 세상에 함께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과 인간-아닌 타자들 모두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를 규정한다(Braidotti 저, 이경란 역, 2015, 217). 공감의 근저에 인간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타자들과 비위계적인 상호 얽힘의 세계에서는 새로운 관계성의 창안이 요구된다. 새로운 관계성은 모든 존재들이 타자와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주침을 통해 얽히고 그러한 얽힘이 변이하는 역동성을 지닌다는 점에 기반한다.

우리는 타자와의 만남에 열려 있으며 이를 통해 변이하고 생성되는 존재이다. 즉 대지의 깊숙한 곳에 단단히 뿌리내린 고정된 주체란 존재하지 않으며, 타자들은 마주침을 통해 탈영토화하여 새롭게 구성된다. 고정된 것으로 상정되었던 단단한 대지 역시 풍화로 인해 물리적으로 변이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 공간 역시 타자들과의 접속으로 전혀 다른 공간이 된다는 사실은 쉽게 지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타자와의 마주침으로 변이하는 존재의 특성을 Connolly는 '사물의 취약성'(Connolly, 2013)으로 명명한다. 모든 개체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타자와 얽혀

있으며, 그러한 만남은 필연적으로 변이를 수반하는 까닭으로 취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불안정한 존재이다. 불안정성은 타자들에게 취약한 상태를 말한다. 예측 불가능한 마주침은 우리를 변모시킨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다. 공동체의 안정성인 구조에 의존할 수 없는 우리는 가변적인 배치로 내던져지고, 이로써 우리와 관계된 타자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재형성된다(Ising 저, 노고운 역, 2023, 51).

하지만 취약함이 근대적 관점에서처럼 무능력함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취약하기에 타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고, 취약하기에 변이할 수 있다. 취약한 타자들은 함께 구성되기에 시작도 끝도 없는 변이의 선을 그려내며, 목적지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을 지닌다. 이는 주체의 우월성과 고정성, 동질성으로의 환원을 거부하고 횡단적 연결을 통한 생성을 긍정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지구의 타자들은 취약하기에 공생의 윤리학이 요청된다.

해러웨이는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 '응답'이라는 개념을 착안하고 강조한다(현남숙·김영진, 2023, 201). 즉 취약한 타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응답하는 능력(response-ability), 즉 책임(responsibility)이 요구되는 것이다(Haraway 저, 최유미 역, 2021). 타자에 응답하는 능력은 우리가 얽힘을 통해 함께 구성되며 세계를 생산하는 관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책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타자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타자를 배제하지 않는, 이질적인 타자들과 '함께 되기'이다.

예컨대 지리교육에서 환경문제를 다룰 때 문제에 대한 인과적 접근 혹은 실증적 접근 이전에 우리와 공간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인식하고 타자에 응답하는 능력을 강조한다면 학습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 교과서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가정, 기업, 국가, 세계 차원의 노력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인간을 능동적 인식과 문제 해결의 주체로, 환경을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 위험이 있다. 즉 환경은 정적인 대상이며, 따라서 인간에 의해 오염되고, 또 인간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를 지속하면서 환경 오염과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놓이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나 쓰레기 등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면 공장의 매연,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이 공기 중에 퍼지며 사람과 동식물에 해를 끼칩니다. 생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농약, 중금속 등이 쌓여 땅이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림 1. 환경문제를 보여주는 초등학교 사회 6-2 B 교과서 삽화



그림 2.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초등학교 사회 6-2 C 교과서 삽화

그러나 모든 존재들은 서로를 횡단하는 타자이며, 함께 거주하는 공생의 관계에 있다. 환경 역시 미시적 스케일에서부터 지구 전체의 스케일까지 우리 삶에 늘 얽혀 있으며 행위주체성(agency)을 가지고 일상에 관여한다. 환경은 분명 타자로서 우리 삶에 존재하나, 타자화된 타자는 아니다. 환경은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변이하고 함께 세계를 구성하는 ‘지구 타자’인 것이다. 따라서 학습에서 환경의 물질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물질을 활기차고 주체적이며 힘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행위주체성은 이전의 비인간 행위와 물질적 얽힘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Sonu and Snaza, 2015, 266).

따라서 지리교육에서 환경에 대한 접근은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을 함께 얽힘의 타자로 다룬다면, 우리와 환경의 관계는 함께 지구에 거

주하는 타자로서 서로와의 만남으로 변이하는 관계로 재설정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생을 위해 지구 환경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 관찰자로서 환경과 생태의 문제를 탐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타자로서 얽힘이 모두의 변이를 수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우리는 인간 및 비인간 타자와 연결되어 세계에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비인간 타자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인간 타자조차 타자화되었던 바탕에는 인간중심적 사유가 있었다. 인간중심적 사유는 초월적 논리로 작용하여 자아와 우리라는 동질성의 경계를 설정하여 경계의 외부에는 이방인으로서 타자를 위치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비인간 타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난민, 이주민, 인종, 성별, 장애 등의 범주로 타자화된 존재들의 정치적 문제와 기후 위기로 인한 위기의식 등은 우리에게 중심화된 척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유 방식을 요구한다. 즉 실재하는 세계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표준과 척도의 이분법적 논리를 해체하고 차이의 존재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타자 개념의 한계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유물론에 기반하여 타자와 타자 공간의 의미를 전환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리교육에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신유물론과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비윤리적 관계와 억압적 존재 상태를 초래하는 문화적 가정과 행동 패턴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 주체를 존재론적으로 변화시켜 자연적, 기술적, 공간적 환경과 근본적으로 얽혀 있는 존재로 전환한다(Sonu and Snaza, 2015, 259). 물질적 존재로서 인간은 초월적 중심성을 해체하여 비위계적 평면 위에서 비인간 존재들과 얽혀 배치된다. 이렇게 볼 때 타자는 경계 너머의 이방인으로서 타자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로 개방된다. 타자와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내부-작용의 횡단적 연결은 고정된 정체성을 해체하고 복수의 정체성들로 이끈다. 그리고 타자들의 얽힘 사이에서 새로운 정동과 감각, 물질성이 창조된다.

타자 공간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은 주로 이분법적 사유에 기반해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유물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타자 공간의 의미를 비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존재들이 내부 작용하는 공간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고정된 경계가 아닌 임시적, 다공적 경계를 지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공간 개념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타자 공간은 ‘타자의’ 공간이며 이는 명확한 경계를 내포하는 재현된 공간을 뜻한다. 그러나 타자를 서로 얽히며 변이하는 물질적 존재로 본다면, 타자들의 세계에서 공간의 의미 역시 전환된다. 새로운 관점에서 타자 공간은 ‘타자의 공간’이 아닌 ‘타자와의 공간’이다. 타자 공간은 이질적인 타자들이 비위계적으로 얽혀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역동적 공간이다. 따라서 타자 공간은 귀속의 공간에서 생성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요컨대 타자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그 자체이며, 타자들이 함께 얽혀 거주하며 세계를 생산하는 생성의 지대이다.

다음으로 타자와 타자 공간의 의미 전환을 바탕으로 지리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리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 및 공간적 삶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따라서 지리교육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교육 목적과 방향,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지리교육에서 타자 개념을 인간 너머의 존재로 확장함으로써, 학생들은 공간에 존재하는 비인간 타자의 행위주체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을 정적인 대상이 아닌 타자와 함께 얽힘의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간을 인간과 비인간 타자들이 얽혀 있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공간의 특이성과 변이를 인식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관점은 지리교육에서 다양한 존재들의 내부 작용을 통해 공간적 지식을 체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리교육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응답-능력(response-ability)’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간과 비인간 타자들 간의 비위계적 관계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관계성을 통해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변이와 재구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지리교육에서 학생들이 환경을 우리와 함께 얽혀 있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하여, 타자들과의 얽힘이나 세계를 구성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타자에 응답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

- 1) Thomas(2005)는 미국 고등학교 급식실의 공간성에 관한 연구에서 급식실 공간 내에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는 가시적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학생들의 일상적 수행을 통해 인종적 차이를 영속화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경계가 작동한다고 밝혔다.
- 2) 데리다에 따르면 관용은 주체에 의해, 주체의 영역 안에 한계 지워진 주체 중심적인 것인 반면, 현대는 타자 중심적인 것이다(김애령, 2008, 187).
- 3) 물론 신유물론은 신체-정신, 물질-담론과 같은 이분법적 구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이분법을 횡단하여 사유하기 위해 정신이 아닌 물질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비신체적 것 역시 물질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신과 물질은 대립하는 이분법적 요소가 아니라 이미 서로 얽혀 모종의 효과를 생산한다. 즉 신유물론에서는 재현적 요소를 부정하고 물질성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분 자체를 지우는 물질성과 물질의 행위성에 주목한다.
- 4) 어질리티(agility)는 개와 사람이 함께하는 장애물 경주다. 지정된 코스를 사람의 안내에 따라 개가 정확하고 빠르게 통과해야 한다. 민첩성이 경기의 승패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과 개의 호흡이 매우 잘 맞아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Haraway 저, 황희선 역, 2019).
- 5)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타인’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타자’와 ‘타인’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8,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김갑철, 2016, “정의를 향한 글로벌 시민성 담론과 학교 지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2), 17-31.
- 김갑철, 2017, “세계지리 교과서의 ‘이주’다시 읽기: 정의로운 글로벌 시민성을 향하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3), 123-138.
- 김갑철·조철기, 2017, “글로벌 차원의 정의를 지원할 지리 교육 실천 방안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3), 37-50.
- 김민성, 2013,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통한 지리 교과서 재구성 전략: 르완다를 사례로”, 사회과교육, 52(2), 59-72.
- 김병연·조철기, 2020, “사회-자연 이분법을 넘어선 도시 이

- 해를 위한 ‘인간-너머의’ 지리교육 가능성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4), 436-448.
- 김아영, 2010, “세계지리 교과서의 탈식민주의적 분석”, 교육과정연구, 28(3), 167-191.
- 김애령, 2008,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현상학과 현대철학, 39, 175-205.
- 김지영, 2004, “틀피즈의 타자 이론”, 비평과 이론, 9(1), 49-80.
- 김지윤, 2022, “타자들의 공동체: 타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가능성”, 공간과 사회, 80, 71-102.
- 김현섭 외, 2022, 초등학교 사회 3-2, 비상교과서.
- 박경환, 2008, “소수자와 소수자 공간: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을 위한 제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6(4), 297-310.
- 박선미, 2023,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지리』 교과서의 지역적차 내용 특성과 문제점”,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4), 75-89.
- 박인현 외, 2023, 초등학교 사회 6-2, 지학사.
- 박준영, 2023,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 그린비.
- 서동욱, 2000,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 오현경, 2018, 공간 정의의 관점을 적용한 초등 사회과 교과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요한·임은진, 2021,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을 통한 세계 시민교육 방안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10(1), 51-65.
- 장혁준, 2018, “인류의 이방인화에 따른 대안적 시민성의 논리적 근거 모색: 21세기 국제이주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25(4), 1-25.
- 한동균, 2016, “탈식민주의 장소학습에 따른 학생의 장소스키마 변화 탐색”, 글로벌교육연구, 8(2), 59-85.
- 한지은, 2024, “빈곤의 지리학을 위하여: 지리 교과서의 빈곤 재현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13(1), 1-16.
- 한춘희 외, 2023, 초등학교 사회 6-2, 아이스크림미디어.
- 현남숙·김영진, 2023, “생태적 응답과 타자현상학”, 철학·사상·문화, (41), 194-216.
- Barad, K.,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Bogue, R., 2004, Search, swim and see: Deleuze's apprenticeship in signs and pedagogy of images,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6(3), 327-342.
- Bondi, L., 2003, Empathy and identification: Conceptual resources for feminist fieldwork, *ACME: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Critical Geographies*, 2(1), 64-76.
- Braidotti, R. 저, 이경란 역, 2015, 포스트휴먼, 아카넷(Braidotti, R., 2013, *The Posthuman*, Polity Press).
- Braun, B., 2004, Querying posthumanisms, *Ceoforum*, 3(35), 269-273.
- Cairncross, F. 저, 홍석기 역, 1999, 거리의 소멸 ㉞ 디지털 혁명, 세종서적(Cairncross, F., 1997, *The death of distance: how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will change our liv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Charim, I. 저, 이승희 역, 2019, 나와 타자들: 우리는 어떻게 타자를 혐오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가, 민음사(Charim, I., 2018, *Ich und die Anderen: Wie die neue Phantazierung uns alle verändert*, Paul Zsolnay Verlag).
- Connolly, W. E., 2013, The ‘new materialism’ and the fragility of things, *Millennium*, 41(3), 399-412.
- Deleuze, G. 저, 이정우 역, 1999, 의미의 논리, 한길사(Deleuze, G., 1969, *Logique du sens*, Éditions de Minuit).
- Dewsbury, J. D., 2000, Performativity and the event: enacting a philosophy of differen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4), 473-496.
- Diener, A. C. and Hagen, J. 저, 임경화·현명호·구교선·고반석·김한결·강명주·이형규 역, 2022, 경계들: 보더스터디즈 입문, 소명출판(Diener, A. C., & Hagen, J., 2012, *Border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Fox, N. J. and Alldred, P., 2019, New materialism, *The SAGE encyclopedia of research methods*, 1-16.
- Gregory, D., 2004, *The Colonial Present*, Blackwell, Oxford.
- Haraway, D. 저, 황희선 역, 2019, 해러웨이 선언문: 인간과 동물과 사이보그에 관한 전복적 사유, 책세상(Haraway, D., 2016, *Manifestly Harawa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araway, D. 저, 최유미 역, 2021,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마농지(Haraway, D., 2016,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ke University Press).
- Ingold, T. 저, 차은정·권혜윤·김성인 역, 2024,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 이비(Ingold, T., 2015, *The Life of Lines*, Routledge).
- Jacobs, J. M., 1996, *Edge of empire: Postcolonialism and the city*, Routledge.
- Massey, D. 저, 정현주 역, 2015,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

- 출판문화원(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John Wiley & Sons).
- Massey, D. 저,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2016, 공간을 위하여, 심산(Massey, D., 2005, *For space*, London: SAGE).
- Pedwell, C., 2016, De-colonising empathy: Thinking affect transnationally, *Sanyuktā: A Journal of Gender and Culture*, 1(1).
- Rose, G. 저, 정현주 역,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Rose, G., 1993,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Polity Press).
- Said, E. 저, 박홍규 역, 2007,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Said, E., 1978, *Orientalism*, Pantheon Books).
- Saldanha, A., 2017, *Space after Deleuze*, London: Bloomsbury Academic.
- Sennett, R. 저, 김병화 역, 2020, 짓기와 거주하기: 도시를 위한 윤리, 김영사(Sennett, R., 2018, *Building and dwelling: Ethics for the cit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Simmel, G. 저, 윤미애·김덕영 역, 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Simmel, G., 1908, *Soziologie*, Duncker & Humblot 외).
- Sonu, D. and Snaza, N., 2015, The fragility of ecological pedagogy: Elementary social studies standards and possibilities of new materialism, *Journal of Curriculum and Pedagogy*, 12(3), 258-277.
- Staszak, J. F., 2020, Other/otherness, In Kobayashi, A.(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Amsterdam: Elsevier.
- The Newcastle Social Geographies Collective 저, 박경환·심승희·이재열 역, 2023, (경계넘기와 함께하기를 위한)사회지리학 개론, 사회평론아카데미(The Newcastle Social Geographies Collective, 2020, *Social geographies: an introduction*, Rowman & Littlefield).
- Thomas, M. E., 2005, 'I think it's just natural': the spatiality of racial segregation at a US high school, *Environment and Planning A*, 37(7), 1233-1248.
- Tsing, A. L. 저, 노고운 역, 2023, 세계 끝의 버섯: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삶의 가능성에 대하여, 현실문화연구(Tsing, A. L., 2015,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uin, I. V. D and Dolphijn, R. 저, 박준영 역, 2021, 신유물론: 인터뷰와 지도제작, 교유서가(Tuin, I. V. D & Dolphijn, R., 2012, *New materialisms: Interviews & cartographies*, Open humanities press).
- Valentine, G., 1989, The geography of women's fear, *Area*, 385-390.
- 접 수 일 : 2024. 08. 02
수 정 일 : 2024. 08. 25
게재확정일 : 2024. 08. 26
- 교신: 박명화, 2739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93, 가경초등학교 교사
(saint0182@hanmail.net, 043-234-1017)
- Correspondence: Myung Hwa Park, saint0182@hanmail.net